

Zoom In



「은빛마을 노인작품 전시회 및 바자회」를 바치며

용산재가노인복지센터

11월 28일 「은빛마을 노인작품 전시회 및 바자회」 개최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참으로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개최식이 진행되는 동안 어르신들을 보며 2002년 한해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전시회 작품들을 만들면서 작품에 몰두하시는 어르신들의 얼굴이 생각납니다. 손 솜씨가 매우 뛰어나신 조경완 할머니, 황순예 할머니, 남정희 할머니, 김선옥 할머니, 최수노미 할머니 등등....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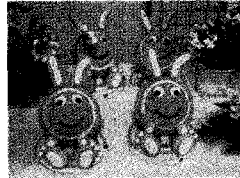
용산재가노인복지센터 주간보호소에서는 심신허

약 및 치매 어르신들의 인지 능력 유지를 위해 종이 접기와 원예치료 프로그램 그리고 여러 의료 서비스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진행되어지는 원예치료 프로그램은 조화 및 생화를 이용하여 어르신이 순수 창작으로 생활공예품을 만드는 시간이고, 종이접기 프로그램은 작은 종이를 접어서 꽃, 사진 액자, 종이인형 등 생활용품을 만드는 시간으로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에게 세심한 기술이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은빛마을 어르신들이 만드신 작품 하나 하나에는 세심함과 정성이 묻어나와서 완성되어진 작품들이기에 정말 그 노력으로 돋보이는



은빛마을 어르신 작품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센터 내에 전시하여 우리 직원들만 관람하고 보기에는 정말 아까운 작품들이 많아 「은빛마을 노인작품 전시회」 개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전시회를 개최하자고 할 때는 어르신들이 매우 부끄럽고 창피하여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르신들의 손길 하나 하나에 담겨지는 정성과 열정은 우리 직원들의 눈시울을 적시울 정도로 매우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전시회 개최식날 용산구의회 이영섭 의회장님, 용산구청 노인복지과 이정근 계장님, 용문 우체국장님 등 여러 내빈들을 모시고 송인숙 국장님의 축하인사의 시작으로 우리 어르신들은 감사의 선물로 “과수원 길”, “클레멘타인”을 열심히 합창하시고, 한국 마사회 민요교실 회원님의 국악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11월 29일, 30일 「은빛마을 노인작품 전시회 및 바자회」는 전시기간 내내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람과 후원으로 성황리에 진행되어지고 전시회뿐만 아닌 음식 바자회도 식당에서의 정성이 담긴 어머님의 맛으로 호박죽, 파가 듬뿍 얹혀진 두툼한 파전, 국수, 매콤한 떡볶이 등으로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1월 30일 직원들과 어르신들의 정성과 노력이 사랑의 열매로 크게 결실을 맺게 되어 행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2002 은빛 마을 노인작품 전시회 및 바자회」에서 음식 바자회를 위해 열심히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신 직원들에게 매우 큰 감사를 드리며, 또한 전시회를 위해 열심히 도와 주신 여러분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전시회를 준비하며 우리 어르신의 솜씨가 젊은 사람 못지 않게 뛰어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은빛마을 어르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으며 2003년에도 건강하세요! **PRF**